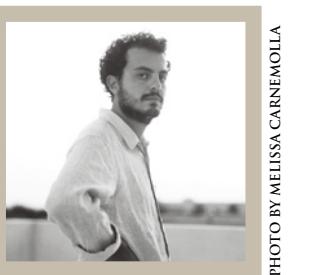


30 > 6,900원
ISSN 2234-117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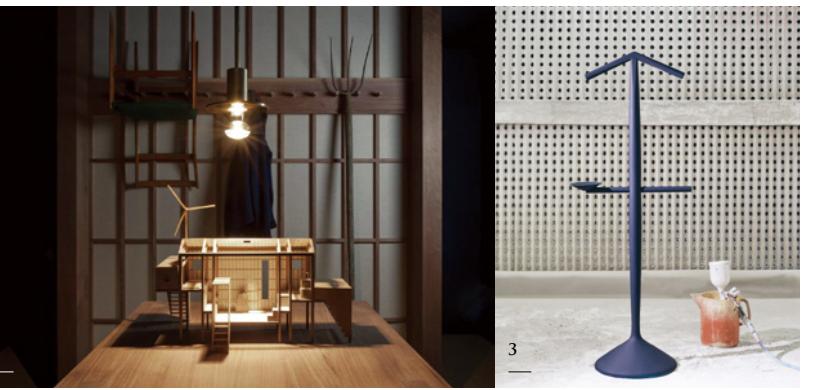
30 > 6,900원
ISSN 2234-117X

designer living



GIUSEPPE AREZZI

올해 내놓은 신작 마니코 체어는
블루, 그린, 엘로, 크림까지 네
가지 컬러로 산보이어 물푸레나무
구조에 변화 리넨 혼방 소재 시트와
천연가죽 스트랩을 사용했다.
Edition It's Great
Design(www.greatdesign.fr)
Photo by Natale Leontini



GIUSEPPE AREZZI

응시와 실용의 디자인, 주세페 아레치.
contributing editor 류진영 / cooperation GIUSEPPE AREZZI(giuseppearezzi.com)

1993년 시칠리아 라구사에서 태어나 밀라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젊고 재능 있는 디자이너 주세페 아레치. 그의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 인터뷰를 통해서다. 네이처 디자인과 미래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그의 답은 인간이 피난처를 찾고 생활에 유용한 필수적인 도구를 만드는 행위로 향했다. 유목민의 텐트, 캠핑족의 무덤, 도시에 존재한 아케이드 같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건축양식을 논한 버나드 루도프스키의 '토속적 건축'을 예로 들었고 전통적인 건축양식이 아닌 완벽하지 않으나 불변적인 가능성을 추구했다. 기술이나 호화로움과는 거리를 둔 원시적인 아름다움, 때로는 고농축된 조형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그는 그는 자연과 디자인의 관계에 대해 암으로 끊임없이 질문할 것이라 했다.

얼마 전 그의 디자인을 다시 보았다. 잠시 잊고 살던 친구가 나는 이만큼 성장했고 이렇게 살고 있음을 전하는 메시지 같았다. 작품들은 디자인 세계를 응시하여 해법을 찾아가는 사려 깊은 디자이너의 오늘을 담고 있다. 올해 내놓은 마니코(Manico)는 불필요한 장식과 요소를 떨어내고 물푸레나무의 고유한 물성과 모던한 컬러를 입힌 패브릭을 매치해 전원생활의 단순함을 표현한 암체이다. 시칠리아에서 자라는 과일 캐롭을 주인공으로 삼은 카루바(Carruba)는 땅에서 수확하며 새콤한 향기로 공기를 물들이는 캐롭은 시칠리아 지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관하고 거친 과일이다. 주세페는 이것을 기념품.

기억의 소품, 감정과 감각을 활성화하는 버튼이라 수식한다. 수납함을 간직하고 테연하게 놓인 의자 트라모지아(Tramoggia)와 조명을 매단 데스크 겸 의자 장식장으로 쓰이면 좋은 비노미오(Binomio), 옷을 걸고 서초화 바지를 접고, 이튿날 이침에 입을 옷을 준비하기에 좋은 솔리스탸(Solistà), 현대인의 은신처를 설치작품으로 표현한 베이타 솔리투도(Beata Solitudo)까지 그의 디자인 세계를 관통하는 관찰과 생각과 실용의 내러티브는 주세페의 작품들을 고요히 응시하게 만든다. 어쩌면 그에게 디자인이란 한 편의 서사일지도 모르겠다. 유년의 기억, 현재의 시선, 미래에 대한 상상을 담아내는 작품들을 오래 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

1 2020년에 선보인 의자 트라모지아는 기하학적인 형태와 강렬한 컬러로
완성했다. Edition It's Great Design(www.greatdesign.fr) Photo by Melissa
Carmemolla 2 2017년 이탈리아 로마 칸티에레 갤리 디자인에서 선보인
설치작품으로 현대인의 은신처를 표현했다. Photo by Francesco Conti
3 솔리스탸는 의류부터 액세서리까지 내일을 준비하도록 고안한 스탠드형 가구다.
Produced by Desine(www.desine.it) Photo by Max Rommel 4 2014년 스스로
만든 바구니 제작 과정의 기록. Photo by Max Rommel 5 여러 기능을 기장 단순한
형태 속에 간결한 가구, 비노미오. Edition It's Great Design(www.greatdesign.fr)
Photo by Studio Giunta